

# 거래액 56조 '코인 공룡'... 회원자산 현황 분기별 공개

(월간 기준)

## 가상화폐 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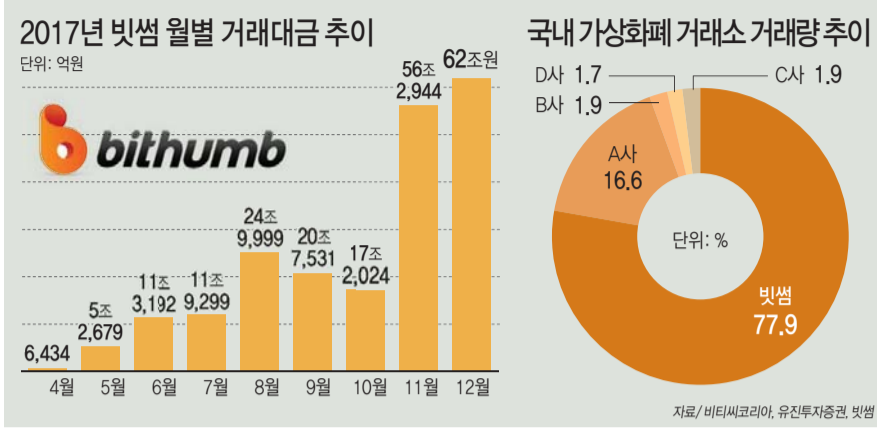
### 거래규모 국내 1위 '빗썸'

국내 전체 거래량의 78% 차지  
해킹으로 개인정보 3만건 유출  
서버 오류·해킹 보완대책 시급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이 거세다.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규제 무풍지대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투자 못지 않게 어느 거래소를 선택해야 하는 지도 중요해졌다. 이에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례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장점은 압도적인 거래규모다. 10일 가상통화 거래 정보사이트인 코



인힐스에 따르면 12개 코인을 취급하는 빗썸은 지난해 11월 13일 기준 국내 가상화폐 전체 거래량의 77.9%를 차지해 단연 1위다. '업비트'의 경우 지난해 10월 출범했지만 아직 코인힐스 등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통계에서 빠졌다.

빗썸의 월 거래대금은 지난해 1월 약 3000억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5월

에는 5조2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56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가상화폐 시세는 전 세계나 국내 시장 전체가 아닌 거래소별 매매로 결정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중요하다. 거래 물량이 많을 수록 시세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유지를 수 있고, 상대적으로 특정 세력의 시세 조작이나 부정한 거래도 힘들어

진다.

반면 빠르게 늘어난 거래량은 단점이 되기도 했다.

빗썸 투자자들은 지난해 거래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잦은 서버 오류로 분통을 터트렸으며, 해킹 사고로 회원 개인정보 3만 건이 유출되기도 했다.

빗썸은 이 같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플랫폼과 시스템, 보안 등 서비스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도 시스템을 증설했으며, 보안의 경우 외부 공격에 대비해 모의 해킹 테스트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 준수는 물론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외부 보안 컨설팅 등을 통해 금융업계 이상의 보안 수준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빗썸은 원화 자산은 회사의 운영 자산과 분리된 은행계좌에 별도로 보관하며, 암호화폐는 엄격한 보안 관리 체계 하에 운영되는 핫월렛과 콜드월렛에 보

관한다.

올해부터는 매 분기별로 회원들의 자산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빗썸은 지난해 말 전수용 전 NHN엔터테인먼트 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전 대표는 일단 시스템 안정화에 집중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으로 각 국가별 거래소를 구축하는 글로벌 진출과 핀테크 영역에서의 신사업도 고민 중이다.

올해 들어서는 400명 규모의 채용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본사 전 부문을 걸쳐 100명, 고객센터 300명 등이다. 채용이 완료되면 현재 강남·광화문·부산 등 3곳인 고객센터를 한 곳 더 늘릴 예정이다.

빗썸의 자본금은 200억원 이상으로 협회의 자율 거래소 자본 요건인 20억원을 크게 웃돌며, 보험업계 최고 보상 한도의 사이버종합보험과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한 상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버블 논란' 비트코인... 韓 GDP 0.04%p 올린다

직장인 31.3% 가상화폐에 투자  
1인당 평균 566만원·80% "이익"

17세기의 '튤립광풍' 처럼 '가상화폐 열풍'이 한국에 불고 있다. '비트코인' 광풍이다. 한국은 일본,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비트코인 거래가 활발한 국가다.

신 스나이스 플로리다 대학의 이코노미스트는 "비트코인은 가상세계의 튤립 버블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여러 번 경고를 울리고 있다.

비트코인이 한국경제에 꼭 부정적일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자산가치가 16조 증가한다면 연간 실질GDP가 0.

04%포인트 높아진다는 분석이 있다.

### ◆실질GDP 0.04%포인트 ↑

경제지표나 체감경기에서도 주식 등 자산가치가 오르면 소비가 증가하는 '부(富)의 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한국경제에 가져다줄 부의효과는 얼마나 될까.

하나금융투자 이미션 연구원은 10일 "비트코인의 자산가치가 16조원 증가했을 때 한계소비성향을 감안한 '부의효과'는 6400억원으로, 연간 GDP를 0.04%포인트 높인다. 특히 2017년 연말로 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2018년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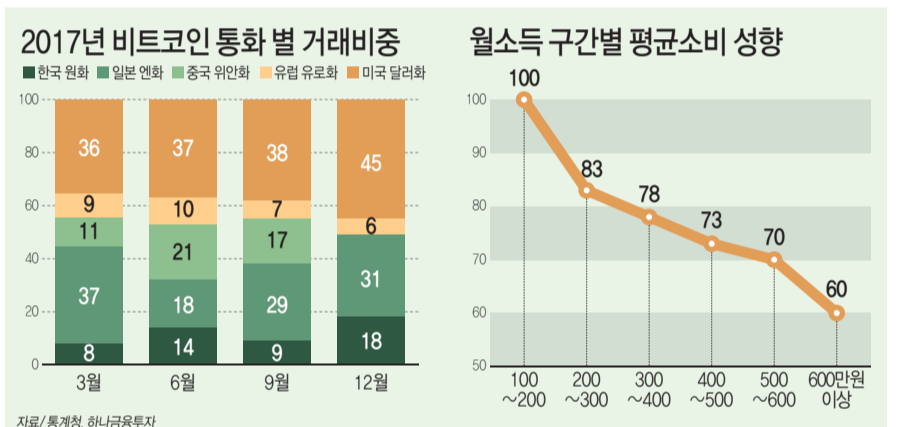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한국의 투자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가 2017년 연말까지 186만개(2017년 4~6월 중 원화 거래 투자자가 매입한 개수)가 유지된다 가정하에 분석한 결과다.

### ◆비트코인 투자자, 소비 나설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실제 소비와 GDP 상승으로 이어질까.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인이 직장인 9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1.3%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투자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2%(복수응답)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투자 액수는 1인당 평균 566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다는 사람 중 이익을 봤다고 답한 사람은 80.3%를 차지했다. 국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앱 사용자 중 10~30대 연령층 비중은 63%에 달한다.

이 연구원은 "교육비를 제외한 연령별

평균 소비성향은 20대가 가장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성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비트코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20~30대의 소비증가가 최근 국내 소비지표 호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77호(2017.10.17)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가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상담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